

올바른 성지식 통한 학내 여성 위치 조명

“성희롱, 생명에 대한 희롱과 같다”

지난 30일(토)에 용인캠퍼스 도서관 3층 세미나실에서 성교육 학교가 열렸다. 이번 성교육 학교는 9년에 이어 두번째로 하는 것으로 지난 3월 15일(금) 용인캠퍼스 117번 통학버스에서 있었던 여학생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열리게 되었다. 이 사건 이후 수많은 대자보가 학내에 붙었고 성(性)이란 것에 대한 학생들이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학생들의 관심은 오히려 고장난 성지식에까지 미치지 못했다. 이번 성교육 강사는 내일신문 여성문화센터 부위원장인 구상애(41세)가 ‘신나는 성(性)’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구상애씨는 “정당한 성은 ‘생명’의 관점으로 시작된다”며 여성의 모습을 무시하는 성희롱이나 성폭행의 부도덕성을 지적하며 ‘성’에는 ‘생명’과 ‘쾌락’ ‘사랑’이 담겨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생명을 존중하지 않을 때 바로 다투어 이루어지며



지난 4월에 있었던 학내 성폭행사건으로 인해 학내 성문화와 학생들의 성지식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사진은 강연의 모습.

이는 주체로 강연을 펼쳤다. 구상애씨는 “정당한 성은 ‘생명’의 관점으로 시작된다”며 여성의 모습을 무시하는 성희롱이나 성폭행의 부도덕성을 지적하며 ‘성’에는 ‘생명’과 ‘쾌락’ ‘사랑’이 담겨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생명을 존중하지 않을 때 바로 다투어 이루어지며

이는 주체로 강연을 펼쳤다. 구상애씨는 “정당한 성은 ‘생명’의 관점으로 시작된다”며 여성의 모습을 무시하는 성희롱이나 성폭행의 부도덕성을 지적하며 ‘성’에는 ‘생명’과 ‘쾌락’ ‘사랑’이 담겨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생명을 존중하지 않을 때 바로 다투어 이루어지며

이는 주체로 강연을 펼쳤다. 구상애씨는 “정당한 성은 ‘생명’의 관점으로 시작된다”며 여성의 모습을 무시하는 성희롱이나 성폭행의 부도덕성을 지적하며 ‘성’에는 ‘생명’과 ‘쾌락’ ‘사랑’이 담겨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생명을 존중하지 않을 때 바로 다투어 이루어지며

이는 주체로 강연을 펼쳤다. 구상애씨는 “정당한 성은 ‘생명’의 관점으로 시작된다”며 여성의 모습을 무시하는 성희롱이나 성폭행의 부도덕성을 지적하며 ‘성’에는 ‘생명’과 ‘쾌락’ ‘사랑’이 담겨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생명을 존중하지 않을 때 바로 다투어 이루어지며

허윤숙 기자



지난 3일(금) 오후 2시 서울캠퍼스 상경대 건물 303호에서는 이석영 인 강연이 있었다.

정치학과와 이석영교수가 민주노동 수석부위원장이 김영대씨를 초청한 것이다. 노동청 기념행사때 사회를 보기도 했던 김영대씨는 목이 쉬어 있었으나 열성을 다해 강연했다.

강연은 주로 학생들의 질문과 김영대씨의 대답으로 이뤄졌다. 96년도에 결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임금인상투쟁과 단체협약 계약 등에 관한 이야기와 노동자 사이의 정치 세력 건설 등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리고 새롭게 규정해야 할 노동자와 자본가 혹은 경영자와의 관계에 관해서도 논했다.

이날 강연은 10여명의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 참가하여 학기에매한 분위기로 진행됐으며 학생과 노동자의 연대라는 부분을 캠퍼스인에서 실현하는 본보기이기도 했다.

김주영 기자

학술단신

외국문학연구소 특별강연회 개최
번역에 대한 진지한 논의

외국문학연구소는 오는 9일(목) 4시 시청각실을 203호에서 ‘외국문학 번역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회에 강사로 초빙된 러시아 작가 아나톨리 김은 충실한 번역이 러시아 문학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이번 강연에서는 외국문학 작품을 직접 번역해 본 경험을 토대로, 문화 텍스트 번역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발표할 예정이다.

외국문학연구소는 한민국의 문학이 세계문학의 큰 바다로 흘러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인 ‘번역’이 그간 깊이있게 연구되지 못한 점을 토대로 이번 강연이 번역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일깨우는 자리가 되기를 바랐다.

세계경영대학원 1학기 특강 개최
한국의 경제전력 다름 예상

세계경영대학원은 오는 8월(수) 8시 대학원 104호에서 96년도 1학기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의 제목은 ‘동북아의 물류중심과 세계화’이며 조장재(해운산업연구원 원장)씨의 강연으로 이뤄진다.

이번 강연의 내용은 한국이 동북아의 교역중심지가 되어야 하는 이유와 이에 따른 동북아시아에서의 한국의 세계화 전략이다.

강사인 조장재씨는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으며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물류산업 문제를 전략적 차원에서 연구, 검토해 왔다고 한다.

출판부 신간서적 발간
지역학과 태국어에 대해

출판부는 ‘지역학과 태국어에 대한 연구의 편’과 ‘태국어 쉬운 태국어(회화용 편)’을 편찬했다.

‘지역학과 태국어’는 지역학의 개념과 지역학의 대상과 방법론, 지역학의 정치학, 역사, 경제학, 환경론 등의 학문적 위상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세계를 11개의 지역으로 나눈 뒤 각 지역의 연구현황과 과제, 태국어에 대한 태국어 수준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했다. 이번 서적은 본교에 개설돼있는 2개 언어학의 지역학 연구의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태국어 쉬운 태국어’는 태국어 강의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초보자들을 위해 태국어 입문용 꾸며졌으며, 제 1부 ‘문자와 발음’, 2부 ‘음절과 조어법’, 3부 ‘문법’편으로 구성됐다.

소금상자 복수노조

한편 제3조 1항은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에 있고 자주적인 단체이므로 헌법상의 노동단체이다.

그런데 헌법보다 하위법인 노조법 제3조가 노조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에 있고 자주적인 단체이므로 헌법상의 노동단체이다.

제3조 5항은 헌법상의 노동단체이다.

위헌조항에 의해 인정받지 못한 노조도 당연히 헌법으로 보장된 노조이고 그러므로 당연히 헌법상의 보호하에 있는 민법과 노조법상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당국은 위헌인 노조법 제3조 5항에 근거해 복수노조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정부 스스로가 사용자를 위해 헌법을 어기는 일을 그만두고 노동자를 위해 복수노조를 인정하고 이에 앞서는 사색을 펴야 했다.

박복수 기자

이 책

노동의 종말 속에 찾은 미래상

제레미 리프킨이 지은 노동의 종말(End of Work)은 노동문제의 과거·현재·미래를 알리려고 쓰였다.

단순한 농업에서 산업혁명을 거쳐 노동이 쓰이는 산업이 점차 변화되었다. 농업시대에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모두 일을 할 수 있었고 많은 노동력이 요구되는 일이었으므로 남양도는 노동력이란 존재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기계라는 것이 등장하자 사람 몇사람의 노동력을 모아 할 수 있게 되어 실업자가 생기게 됐다. 이는 산업 단계가 점차 고차원적으로 옮겨 가면서 더욱 확실하고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실업자들은 세계가 발전할수록 늘어날 것이다.

그렇지만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현상에서도 보듯이, 산업사회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정보화시대의 온갖 첨단 직업에 종사할 능력이 되지는 않는다. 또 세계의 산업단계가 발전하게 되면 기존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띠는 민족국가의 개념이 흔들리게 된다. 이러한 국가의 주요한 기능은 권력을 사용하여 주요한 자원을 장악하고 지역적 심지어 세계적인 노동력을 확보하고 활용하는 것이었다. 복합적 생산과정에 있어서 정보, 커뮤니케이션, 지적 소유권

의 중요성에 비해 에너지, 광물자원, 노동력의 중요성이 점점 적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제레미 리프킨 지음
이용호 옮김
민음사 펴냄

것은 다시말해 대규모 군사의 개념의 필요성이 축소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고정된 지형과 공간적 근거를 갖고 있는 민족국가는 본질적으로 시간적인 세계기업에 비해 너무 둔하다. 정부와 기업간의 변화하는 관계

를 국제 무역협정들을 보면 더 명확해진다. 이 협정들을 통해 점점 더 많은 권력들이 민족국가로부터 세계기업들로 이전되고 있다. GATT나 NAFTA 등이 새로운 권력편을 잘 나타내 준다.

이러한 무역협정 하에서 다국적 기업들을 위한 자유로운 무역타협이 이뤄지자 현대적인 제국주의적 성격을 띤 민족국가의 통치권과 관련된 수백개의 법률들이 무효가 되어 버린다. 그렇게 되면 노동, 환경, 건강 등과 관련된 그레도 비교적 인간다운 법률들이 일거에 없어지므로 10여개의 국가에서 유권자들의 격렬한 공식적인 항의가 있었다고 한다.

점점 노동은 이른바 ‘세계화’되어 세계의 경쟁능력은 막대한데 비해 무한히 무너지고 가는 것이다.

이책의 저자에 따르면 이렇게 첨단기술을 갖춘 미래가 다가올수록 노동자는 점차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잃게 된다. 그렇지만 이책의 저자는 이러한 미래를 막기 위한 방법들을 나름대로 제시해 놓았다.

그것은 기술발전의 이익을 그 피해자인 노동자와 광범히 나누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것이다.

허윤숙 기자

생활속에서
안락는 합성세계

하천오염에 관한 얘기가 실려있는 게 대부분이고 있는 때, 우리는 한참 합성세계를 쓰지 말자는 말을 하곤 하였다. 합성세계가 물에 잘 분해되지 않아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후 합성세계를 만드는 회사들은 너도 나도 “그린”을 상품화해 갔다. 불이 들어오면 합성세계도 하천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선전하였다.

그러나 최근 환경과 공해연구회와 조사결과와 상관 없이 합성세계들이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회에 따르면 한 한국공급규격(KS) 시험방식(하천에서 채취한 합성세계를 분해 미생물원으로 사용해서 25도에서 실시)으로 검사하면 30ppm 정도의 세제가 5일만에 100%분해되었지만 온도를 5도로 낮추고 합성세계에 대한 한강물질을 사용하면 5ppm 정도의 세제가 5일이 지나도 녹지 않았다고 한다. 또 하천수의 온도가 높을수록 분해가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연구결과에 하수처리장에서 채취해 순화시킨 합성세계는 하천에서 분해속도를 늦춘다

는 미생물보다 분해능력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 하천수의 온도에 따라 녹는 정도가 달라 불·가솔린의 온도(15)와 겨울철의 온도(5)에서 생분해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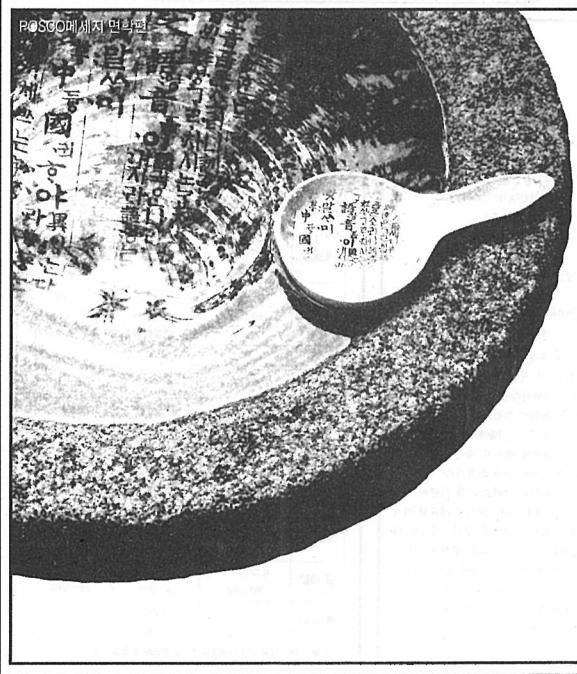
따라서 실제 하천수와 조건의 다른 합성 세계를 이용한 각 회사의 자체 실험이나 관계기관의 실험결과와는 거의 무관지물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은 환경오염을 더 줄이는 합성세계 개발에 힘써야 하고, 정부는 소비자들이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고 계속 합성세계를 이용해 합성세계분해도를 측정한다면 이것은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행위일 것이다.

유형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대다수 나라들은 하천수를 사용해서 합성세계를 시험하고 있음을 되새겨 보아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합성세계 시험방법을 하루 빨리 연구해야 할 것이다.

박복수 기자

면학의 4월,
진리의 샘물을 맘껏 마시자!

캠페스에 찾아오는 봄의 전령은 무엇일까?
한 귀뚜라미 조용히 괴어낸 진달래와 새내기들의 노란 웃음꽃 그리고 겨울의 무거운 외투를 벗어 던지고 진리의 샘물을 마시기 위해 도서관으로 향하는 바쁜 걸음들이 아닐까?

누군가 말했다!
20대의 가장 큰 재산은 돈도, 명예도, 아름다움도 아닌 지식이라고 인생의 황금기인 20대의 나, 내 지식의 깊이는 얼마쯤 될까? 밤늦도록 도서관에서, 실험실에서 책과 씨름하고 귀가할 때 느끼는 그 기쁨과 환희 또한 대학생의 특권이 아닐까?

을 봄, 진리의 샘물을 맘껏 마시지 못할 것을 굳게 다짐하며 면학의 봄기운이 가득한 도서관을 향해 씩씩한 발걸음을 떼어 본다.

세계제일의 철강기업
포항제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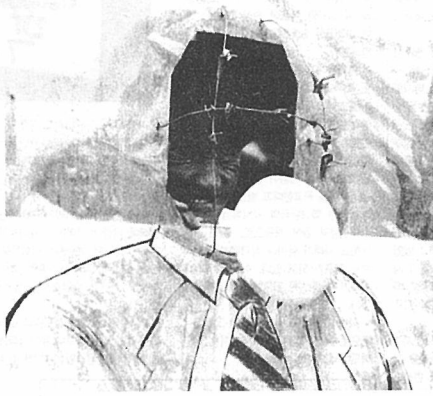
어려움속에서도 이어온 대동제

외대인을 하나로 묶는 재충전의 자리

서울 캠퍼스는 오는 13일(월)부터 16일(목)까지, 중앙 캠퍼스는 28일(화)부터 31일(금)까지 각각 대동제를 개최한다. 외대의 역사와 맞물려 항상 발전을 거듭해온 대동제에 대해 본보에서는 2주에 걸쳐 실는다. 이번호에서는 대동제가 각 시기마다 갖는 의미를 외대의 역사와 사회정세에 맞물려 알아보고자 한다.

권정자

농경사회를 바탕으로 한 우리 조상들은 많은 공동체 놀이 중 대동굿 즉 일(생산), 기원(제), 놀이(놀이)의 유기적 결합속에서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극복해왔다. 본고 대동제는 본고와 57년 이문동으로 이전하고 소년위의 동아리들을 중심으로 사진전, 번역시경 등이 열리는 초보적인 수준에서 시작된다. 그후 64년 개교 10주년 기념 '1회 외대 페스티벌'이 열린 이후부터 66년 까지는 산발적으로 진행되었던 각종 학내 행사를 집중시켜 하나의 축제로 자리잡는다. 또한 67년은 '세계민속예술제전(세민전)'의 전신인 '민속발표회'가 정착된 시기다. 당시 세민전은 개교 이후 아학계열 중심인 본고의 특성상 일과외의 일원이었다. 특히 79년의 경우 전교생 4명중 1명이 참가할 정도로 그 어느때보다도 학생들의 참여가 활발했고 행사에 대한 학생들의 자긍심 또한 대단했다. 81년 '외문학제' 이후



70년대 이후 대동제는 기존행사가 가졌던 비개성화를 극복하고자는 문제의식과 전통의 창조적 계승이라는 과제를 받아 안고 있다.

부터 80년대 말까지 이 시기에는 70년대 세민전 중심으로 진행된 외대의 행사에 대한 여러 반성들 - 70년대 후반 기존 행사가 가졌던 비개성화를 극복하고자는 문제의식과 전통의 창조적 계승이라는 과제

를 받아안으며 -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특히 88년에는 총학생회 부활과 더불어 '민족, 민족, 민족'을 위한 대동굿이라는 본격적인 대동제로 전환했다. 이는 기존의 행사의 형식에서 벗어나 시대를 고민하고 사회의 모순을 바꾸어 내고자 하는 취지를 담아 '시국 원변회' '민속마당놀이' '변화 그리고' '상화당 돌방' 등을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도와 건강한 논의와 창출이라는 방식으로 그려졌다. 90년부터는 80년대 제기되어 온 실천과정을 거쳤던 전통문화와 건강한 논의문화가 좀 더 일상화되고 있고 다시 부활한 세민전(서울 캠퍼스)은 학내적인 방식으로 다가가 감에 따라 집적으로 향상된 외대인의 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또한 대학생들의 행사에서 '노동자 학생 연대의 밤' '노동자 주점' '농산물 직판' '농민 사진전' 등을 통한 노동자, 농민과 연대하고 및 '주민주권' 등을 통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장으로 확장했다. 올해도 대동제는 어김없이 열린다. 90년 민중당 탄생으로 인한 투쟁 속에서도, 92년 전민 파업 상황에서도 대동제는 '오월제' '시월제'라는 형식으로 꾸준히 열렸고 이는 자치 지치고 힘겨워 할 수 있는 상황속에서 외대인을 하나로 묶어 서로에게 힘을 주었다.

윤승호 기자

외대인이 외대인에게

일상에서의 꿈꾸기

홍치산시집
'10분 사랑'



랑, 희망을 들려주는 한 시인만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도시인과 동아리에서 지금도 대자연을 쓰고 있는 외대인의 참모습을 본 것이다.

이 시집을 결코 잘 쓰지 않는다고 할 수 없지만 진실한 한 대학생이 정감어린 눈으로 바라본 대학생들은 일하라는 단어로 시작된 내 생활과 쉽게 공감할 수 있었다. 그의 반성과 고민은 바로 나의 반성과 고민이고 바로 우리 외대인의 반성과 고민이라고 생각된다. 이 두 과정은 분명히 실천으로 이어

져야 할 경제이므로 주위의 모든 관계에서 좀더 철저한 계산을 줄 있어야 했다. 그가 말하는 '내일의 마지막 남남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외주'로 죽음하는 밤(?) 역시 사랑해야만 하는 우리들의 공간이다. 비록 잠시이지만 나의 가슴을 침묵으로 말하는 활자에 맡겨준 시간은 나의 노래가 나의 실천으로 이어지리라 의심치 않는다. 교정의 트리가 내 장사의 공간을 결정할 수 없듯이 한 편의 시집에 좌우되는 생애의 길은 아니다. 단지 '홍치산' 씨의 '10분 사랑'이 내 일부가 되어 나 자신을 찾고자 하는 여정에 동반자가 되었음을 알고 있는 외대인에게나 한 번 정도는 일독을 권하고 싶다.

노동영화제 개최

노동자에 대한 인식전환의 장

지난 4월 29일(월) 소강당에서 동아리 연합회의 주최로 노동영화를 맞아 영화제를 개최했다.

이번 영화제는 사범대 학생회, 정외과 학생회, 마인어과 학생회와 함께 연대 사업으로 5월 1일 노동영화에 맞춰 기획되었다.

구로아리랑, 파업전야, 아름다운 창녀 전열등 노동자들에 관한 영화 3편이 상영된 이번 영화제는 특히 학생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영화와 상영에 학생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가장 먼저 상영된 '구로아리랑'은 구로 공단에서 일하는 여공들이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을 그린 영화이다.

다음 영화는 '파업전야'로 이 영화는 80년에 제작되었지만 아직까지

도 일반극장에서 상영을 못하는 작품으로 한국독립영화의 절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영된 영화는 최근 극장에서 상영되어 작품성과 대중성 모두에서 성공을 거둔 '아름다운 창녀 전열'이 상영되었는데 역시 명성에 걸맞게 학생들이 소강당을 가득 메울 만큼의 카타르시스를 얻었다.

이번 영화제의 주제를 맡은 박영재(동양·마인어 2)군은 이번 영화제가 갖는 의미를 "100년을 맞은 노동절을 96 학번들에게 알리기 위해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아직 그 결과를 알 수 는 없지만 신입생들에게 노동영화의 의미에 대해 조금은 이해시킨 듯 싶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열린 제3회 민족춤제전 전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이다.



제3회 민족춤제전

진보적인 우리춤 축제

한국민족예술인연합회(민예총) 산하 민족춤협회 주관하는 '제3회 민족춤제전'이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4월25일(목)부터 28일(일)까지 계속되었다. 기존 무용계의 구태의연한 문화 행위에 반대하여 시대의 전환이 요청으로 마련되었다고 하는 이 공연은 첫째 동화 백주년기념 사업으로 기획되었던 것을 시작으로 두번째에는 광복 50년의 민족사적의미를 충모로 나타냈듯이 올해도 '푸른향기, 생명의 몸짓'이라는 일관된 주제가 래 오늘날 지구상에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환경문제를 충모로 표현하는 자리가 되었다.

민족춤위원회의 소극단체 뿐만이 아닌 '한이로미 현대무용단', '새임춤' 등의 동참으로 춤계의 화합과 발전의 한마디인 한 이번 공연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중적인 면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으나, 첫째이후 더 난해해지는 표현으로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지않다는 평가 또한 만만치 않다.

생명과 삶과 우리의 환경을 생명의 근원인 물을 소재로 조명한 현대무용단 '푸름'의 '젓빛 강'과 죽어가는 바다를 되살리려는 현대인의 의지의 부재를 다룬 '새임춤'의 '검은 바다를 위한 풀이' 등이 공연되었다.

마르니에 공연에서 아외공연도 함께 했던 이번 공연은 앞으로 부산, 대구, 광주, 청주 등 5대 도시의 순회 공연을 5.6월 매주 토요일 개최할 예정이다.

문 화 단 신

서 울

이태리 영화제 개최

이태리에서 전격적으로 '다우라'의 주최로 지난 2일(월), 3일(금) 대강당에서 영화제를 개최했다.

'강미의 이름' '로미의 휴일' '지중해' '파리에서의 마지막 댄스' 등의 영화가 상영되어 이번 영화제는 이태리의 전파적인 문화를 표현하기에 관련 영화를 상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 아래 이뤄졌다. 영화제를 맡은 노정실(2)안은 "작년 에 조금은 어려운 영화와 상영에 학생들의 참여가 없었다"며 "올해 를 갖고 볼 수 있는 영화를 중심으로 영화제를 개최했다"라고 이번 영화제 선정의 기준을 밝혔다.

신방과 광고학회 영화제 열려

신방과 광고학회가 오는 6월(월), 7월(금) 제6회 광고영화제가 소강당에서 개최했다. 1.2부로 나뉘는 이번 공연에서 1부는 시리츠 광고와 마케팅 측면 등을 강연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그리고 2부는 95년도 간선 광고 영화제를 기본축으로 국제적인 광고를 상영할 것이다. 1.2부를 중심으로 대략 20편 가량이 참여할 이번 영화제의 주제를 맡은 문병호(2)군은 "단순한 영화 소개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이론 문제도 함께 다루고자 한다"고 말했다.

正道경영·초우량 LG

도약 2005

GEAP

당당한 세계 1등

고객에게 드리는 약속입니다.
LG화학의 21세기 비전입니다.

正道경영을 바탕으로 고객 앞에 부끄럼지 않은 깨끗한 1등이 되었습니다.

화학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하는 미래의 1등이 되었습니다.

세계 일류기업들과 공정하게 경쟁하는 세계 속의 1등이 되었습니다.

바 이 오 텍

유전공학 혁신기술을 응용하여 인건비절감으로, 제1세대 항생제 등 첨단화학 신물질 개발

고도의 기술개발 연구로 정보화시대를 앞당기는 반도체 기초소재 개발

식용화학 원료수익 및 저독성, 우수함량 신소재 개발

에너지저장용 프라스틱 등 최첨단 고성능 신소재 개발

무공해 농약, 생활용품첨가제, 식용화학 중간체 등 고부가가치의 신물질, 신기술 개발

생활용품, 화장품, 제약용, 식품 등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한 제품 연구 개발



LG화학

LG화학·LG 석유화학·LG 실트론·LG 일렉트릭스·LG 오일코어스·LG MMA

동두천 누구의 땅인가

산불로 7명 사망 · 공여지로 땅 점유

소종부

소종부



동두천 시내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화재현장. 사진은 화재현장에서 촬영된 것임.

지난 3일(금) 오전 10시 동두천시에서 동두천 시장·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달 미군에 의한 산불로 순직한 공익근무원 6명의 합동 영결식이 거행됐다.

지난 달 23일(토) 동두천시 걸산동 미군훈련장에서 불이 나 이를 진화하던 동두천시 산방개방 이강호(38)씨와 공익근무원 6명 등 모두 7명이 불에 타 숨

졌다. 이에 대해 이계장은 공무원의 자격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고 3월경으로 처리된 반면, 6명의 공익근무원은 박씨 등으로 군인도 공무원도 아니어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10일만에 보상을 받고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미군 2사단 503 보병 1대대 C중대 소속 미군들의 훈련중 연막탄의 유탄에 의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발생 당시 현장에 있던 미군들이 초기진화에 적극 나서지 않아 인명피해까지 이르게 됐다. 이에 미군 측은 "산불피해는 배상할 수 있지만 진화방비와 장비의 원상상으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배상할 수 없다"며 인명피해 책임은 회피했다.

그러나 진화과정에서의 실수와 단순히 갑작스런 화재발생으로 인한 순간적인 화염에 의한 죽음 이라고 보기엔 여러가지 의문점이 있다. 먼저 아무리 강력한 순각적인 불화오기가 덮쳤다 하더라도 어떠한 지형의 흔적이 있어야 했다.

그런데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사인은 7명 모두 2-3미터 빈방에 모여 죽어있고 그 지형의 흔적도 없었다.

둘째, 사고 현장 부근이 주한미군 '오스카 훈련장(가산탄 사격장)'이기 때문에 불발탄 내지는 관리 소홀로 가스탄이 사고 현장에 떨어졌을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사고 당일 산불 발생 전 주한 미군 헬기 B중대가 완원무장한 채 가산탄 사격장까지 모의전투 연습을 했다는 흔적을 확인했다.

넷째, 현재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목격자 김원기(공익근무원)씨의 증언에 따르면, 사고 당시 불을 다 진화하고 휴식시간이 정해졌을 때는 과정에서 순각적으로 강력한 불길이 솟아올라 사용했다고 한다.

위와 같은 의혹을 종합해보면 사망원인이 화염과 바람과 어떠한 폭발물 물질이 결합하면서 강력한 화염이 동반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동두천 민주시민회의는 지난 달 27일(토) 마군 제2사단 정문에서 '동두

천산불 참사 주범 주한미군 범시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시민의 사무국장 김원기씨는 "이번 사건이 미군측 과실과 방조로 일어났기 때문에 미군은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하며 재발방지를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3일 미군군이 동두천 광암동 83-1번지 일대(소목 마을)에 사격장을 신설하려고 땅 8여백 배지를 매지했다. 소목마을은 미군공여지(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함에 있어 기지, 시설, 군사 훈련 등을 위해 필요한 땅을 한국정부에 미군에게 양도하고 미군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땅)로써 국민의 개인 소유지를 미군이 사격장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 당국조차도 어느 곳 어딘지 재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소목 마을 주민들도 자신의 땅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미행정협정 등에 따라 미군에게 사용권이 넘겨진 지 모르고 수확권을 샀었다.

즉 소목마을 주민들은 엄청난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놀라운 것은 미군공여지가 동두천시 전체 면적의 75.3%나 차지한다는 것이다.

현재에도 미군공여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인 사유재산권을 침해, 도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어느날 갑자기 미군들이 정부와 합의된 사항이 나가면 한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동두천의 산불사건이나 소목마을을 미군 사격장 설치 문제만 보더라도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만들어진 한미행정협정이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부

경원대 재단, 제3의 장현구 만들어서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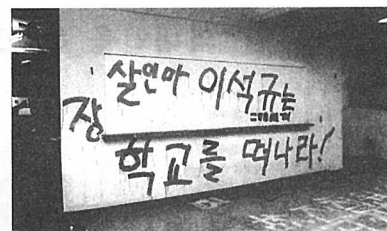
경원대 사태가 극에 치달고 있다. 지난달 6일(토) 본신 사당한 채로 발견된 고 집현정(도시) 교수 사망과 재단 측의 부당한 학교운영에 관련 학생들의 총파업과 이에 맞선 학교측의 임시취업 사태가 커지고 있다.

학생들의 총파업은 지난 달 15일(월)부터 3일에 걸쳐 총파업 찬반투표를 통해 총 4415명 투표에 찬성 2333표, 반대 2182표로 52%의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총파업이 성사되자 학생들은 단대별로 학과파를 제외한 각 행정기관을 점거하고 강의실을 폐쇄하였다. 이후 학생들은 매일 10시까지 통학한 후 과별 분임토론을 하고 2시간 전체집회를 열고 있다. 이러한 학교당국은 지난 달 22일 학내 상황이 정상화를 때까지 임시취업을 공고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학교당국의 임시취업 공고는 경영실정론 등이 처음으로, 현재 경영대학과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보여주는 징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경원대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학교당국에

작년 12월에 고 장현구군이 고문유류 등으로 본신사당 후 학교측이 보여준 태도에서 명확히 나타난다.



파행적 재단운영과 고 장현구군 죽음에 책임자가 할 수 있는 재단을 비판하던 학생들을 무더기로 징계조치 시킨 점, 아울러 학생들을 고발한 점을 봐도 알 수 있다.

이후 경원대의 비리가 알려지면서 경영대학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면서 학교 측은 이번 달 2일(목) 담화문을 통해 오는 6일(월)부터 임시취업 조치를 해 재고하고 전면적 수업개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측의 검토결과 달리 속도는 여전했다. 1차에 두기정학을 징계를 받은 학생을 1명(수) 2차 징계 공고

박병수 기자

경인총련 출범식 개최



통일을 겁내는 이들

지난 달 27일(토) 서울에 주둔한 서울 시내 정경들이 거의 다 모였다. 이날은 조국통일범민족화합연맹(범민족련) 결 의대회 기념식에서 동시에 있는 날이었다. 또한 김세진·이재호 열사 10주기 추모제도 함께 있었다.

학생들이 모이고 있을 때 전두환을 42개 종대 5000여명은 서울에 주둔한 지하철도에서 신분증검사를 했고 서울대 교문에서도 학생들 검사를 했다. 서울대 정문에 모인 학생들은 경찰의 원천봉쇄로 교문로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래서 관악산을 넘어서 교문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여기서 더욱 기가 막힌 일은 바로 '서울대생 이외의 다른 학생이나 단체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라는 대대적인 경고였다. 이유는 범민족화합연맹이 노골적으로 북한을 지지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범민족화합연맹을 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추모제에 내빈으로 참석한 열사의 부모님들은 "추모제를 원천봉쇄한 게 이번이 처음이다"며 "검정권이 겁이 나긴 됐다"고 한결같이 입을 닦았다.

한편 어느 일간지에는 이 집회와 관련해 한층더 친북화하리 마 서울에 총학생회의 입을 빌려 '북이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실체적 없는 집회를 여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보도했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등산을 하며 아크로폴리스공원에 모인 1500 여명의 학생들은 반전·반핵·양기 고국을 외치며 본신사당 열사를 추모했고 그 후 광주학살 배후조종 미국 반대, 한·미 합동 군사훈련 연기중지와 북미사이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결 의회의를 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증명되고 미군이 내 산불에 의해 국민이 죽는 등 미국의 잘못이 드러난 현재, 남북의 청년학생들이 외치는 통일에 대한 열망을 폭력하는 한 정경과 서울대 당국은 과연 어떠한 통일을 원하는 세력일까.

김주영 기자

범청학련, 남북해외 동시 결의대회 개최

방북대표 석방·국가보안법 철폐·연방제 통일 결의

지난 달 27일(토) 서울에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조국통일범민족화합연맹(범민족련) 주최로 서흥련, 경인총련 소속 대학생 1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김세진·이재호 열사 10주기 추모제'와 '남북 해외 청년학생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오후 1시 예정이었으나 대대단과 경찰의 원천봉쇄로 5시경에야 시작할 수 있었다. 86년 4월 28일 '전방 입소 반대의 반전, 반핵, 양기고후'를 외치며 분신했던 김세진·이재호열사(서울대)의 10주기 추모제가 1부 행사로 1시간 30여 분동안 치러졌다.

2부는 '광주학살 배후조종 미국반대, 한·미 합동 군사훈련 연기중지와 북, 미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남북 해외 청년학생 결의대회'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정경의 외침의 정치연설을 비롯해 '통일의 최전방 정민주, 이혜정 대표 석방·식 반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범청학련 특별결의문' 낭독이 있었다. 이 결의문에서 △정민주, 이혜정 대표의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90년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범청학련 남북본부 사무국장이며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인 유병문(동국대 총학생회장)군이 범청학련 투쟁 결의문을 낭독하고 미국과 한 정경의 상

장들에 대한 화형식을 거행했다.

한편 지난 달 20일(토)부터 3월동안 중국 북경에서 범청학련 공동의장단회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 90년을 '평화와 민족대단결의 해'로 만들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할 것인지 논의하고 '90년 범청학련의 나아갈 바(총노선)'를 확정지었다.

총노선에서 확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6월 25일-7월 27일: 범청학련 반미 평화 원전 선포 및 다양한 투쟁 전개 △7월 중: 범청학련 중앙위원회 개최 △8월 15일: 범청학련 제3차 통일대단결 총회 개최 △10월 3일: 범청학련 민족대단결의 날 선포 △10월: 범청학련 기관지 통일선봉대 창간 등을 확정지었다.

지난 90년 8월 15일에, 남북해외 청년학생들이 결성한 범청학련은 미국으로부터의 민족의 자주권을 회복하려는 투쟁과 함께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체결, 남북의 평화적 통일실현을 위한 통일방안 합의문등을 진행해왔다. 범청학련 관계자는 "90년을 평화와 민족대단결, 90년대 연방통일조국건설의 토대를 마련하는 해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허운숙 기자

만도 워터 아이스하키팀이 캐나다 밴더스 스포츠를 통해 기업 아티스트를 사해에 편입하고 있습니다.

젊은 '만도'를 주목하라!

가업 연령 '91년 38.44세, '94년 37.55세- 만도의 성과와 행동이 젊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시장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젊은 기업, 만도- 해마다 젊어지는 혁신 경영으로 미래에 활하게 도전합니다. 2000년대 매출 5조 세계 10대 자동차 부품회사로 목표! 세계와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젊은 기업- 혁신하는 만도의 21세기를 지켜주세요!

가업 연령지표요?

매출액 증가율, 생산 인건비, 경영지표 평균 연령 등의 지표로 산출되는 가업연령. 7명의 경영진과 1만명의 임직원을 보유한 만도- 만도기업이 4년 전인 1991년 38.44세(평균 1991년 44세) 7명의 경영진으로 1994년 37.55세(평균 1994년 44세)로 젊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리그루- 만도기계(주)

4806

영화평시클

강한 색채 이미지로 표현된 제국주의, 그러나 프랑스는 없다

'베트남은 강간 당했다' 지난 30일부터 예술영화 전문판인 동승 세네텍에서는 '세를 물'라는 영화를 상영하고 있었다.

96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했던 다리는 문구가 유달리 눈에 띄는 판넬과 포스터의 스틸사진이 어떤 기대감을 품게 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Ending에서 울라갈 때 서둘러 극장을 나왔다. 담배를 찾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젊은 글(인)을 시작하자. '베트남은 강간 당했다' 영화는 소녀의 아버지의 독백에서 시작된다. '아들아, 우리는 세를 물고 살고 있다. 종라..... 목직도 모르는 채 달리는 것. 이제 내 인생이다' 소녀는 초치된 거리를 세를 물고 달린다. 얼굴엔 피로감과 땀방울이 가득하다. 초치된 거리는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 더욱 뜨겁게 느껴진다. 하지만 그 거리의 뒷길에 들어설 때 기대되고 있는 건 절망감이다. 그건 감동의 의도대로라면 사회주의 자본주의로의 전이가 던져주는 고통에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겠다. 소녀의 가족은 모두가 열심히 일한다. 누나는 식당을 전전하며 부엌에서 손을 쥘한다. 누이동생은 구두를 땀는다. 할아버지는 거에서 자작기 타이어를 땀는다. 그리고 소녀는 허둥지둥 손바를 태우고 달린다. 그러나 7년한다. 소녀에게 있어 세를 물은 아버지의 유산이자 손수였다. 18세 소녀가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지도 모른다.

영화는 세를 물을 도둑 맞으면서 달라지는 누이와 소녀를 그려 나간다. 소녀는 대마한 세를 물로 번성하기 위해 마약을 운반하고 범죄와



해결사 노릇을 한다. 누나는 사형하는 경조자의 보스앞에서 몸을 건다. 그와 사형은 절망의 또다른 이름이다. 그리고 보스는 절망의 나약한 자화상이다. 그는 내면의 언어를 영화속에서 독백으로 뱉어낸다.

사형하는 여인을 다른 남자에게 인도하면서, 그는 그저 담배를 입에 물고 자신의 절망을 애써 감추려고 할 뿐이다. 어느새 지금의 베트남 현실은 그들의 사랑에 대한 절망과 무서운 현실에 대한 소녀의 절망이 대비되면서 민중으로부터 유리되어 간다. 분명히 세를 물라는 영화에 리얼리티는 있다. 하지만 리얼리티는 죽음과 피의 이미지로 봉쇄되어 있다. 트란 안 흥은 그의 전작 '그리 파파의 항기'에서처럼 탁월한 색채 이미지로 영화에다 잔혹 장난을 부려냈다.

보스(문 안조)는 흰색 타워에 붉은 코피를 흘리고 백색 바탕의 벽앞에서는 경멸의 잔인한 살인장면과 대항 아레에서의 살인, 도살장에서 피의 이미지, 노란 페인트와 푸른 페인트로 칠식을 끌구는 소녀, 화염, 트란 안 흥, 그가 어떤 영상으로 관객의 감각을 난사하든 그건 테크닉에 불과하다. 영화를 지켜봐 줄수록 보면 반복되는 이미지를 느낄 수 있을런지도 모른다. 소녀가 방화를 저지르고 대기로 방화되는 돈은 우연히도 닮아있다.

또 그가 하나의 변화를 지지를 때마다 성공의 대가는 단리로 지불된다. 결국 소녀가 손수 파는 대가로서 지불하는 달라는 모두 부정적인 이미지이다. 마치 베트남의 모든 사회악을 상징하듯, 그리고 소녀의 누이가 구두를 닦

는 식당 왼쪽에서는 잘 차려진 테이블위에 코카콜라 병이 놓여 있다. 영화의 중반부에 누나가 물을 마시는 장면이 있다. 그 병위에 몇초간 포커스가 맞추어진다. 'coca'이라는 상표가 붙어 있다. 'coca'는 프랑스의 생수 이름이다. 영화에서 물의 이미지는 그리 명확하지는 않다. 이렇다한 베트남에서 다민 물은 땀을 씻어내고 노동력의 상흔인 발을 씻어내기도 하며 감동을 다스려준다. 베트남은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였다. 베트남은 우리의 근대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독립을 위한 투쟁이 있었고 그것은 제국주의국가 프랑스에 대한 투쟁이었다. 과거의 베트남 전쟁 역시 식민지 시대가 끝나고 일어난 전쟁이었다. 12살 때부터 프랑스에서 자라 왔고 교육받은 트란 안 흥 감독은 가장 논리적인 현실에서 자신에게 영화와 꿈과 기회를 부여한 프랑스를 의도치않은 아나운서로 주었다. 베트남 전쟁과 내이판단을 잊지 않고 있는 한 사이공시민에게는 프랑스의 예비망생수라는 미국의 달인이 좀 더 중요한 기억을 갖게 되진 않을까? 그리고 이 영화를 보는 관객에게조차 한 때 제국주의국가였던 프랑스(한)를 좀 더 제국주의인 미국으로 인해 무의의적이나마 망라하게 되지는 않을까? 나의 지나친 비관적이고 자신할 수 있기를 바라며 언어 언어 언어 영화제와 베니스 영화제를 석권한 트란 안 흥 감독에게 다음 작품은 또 어느 영화제를 석권할 것인가를 묻고 싶다.

안동환

(정재 · 신방 4)

동방화차

세월이 세월을 살라먹고

알라람에 한 줄 남았는

토해낸 백두산 남아

천년 바위같은 몸이라 아호

마음의 불로써 남의 얼굴

장하장하 두리두리 배사라 두리두리

그리난지 언제던고 아호

장하장하 두리두리 배사라 두리두리

아리리리 휴전선 그대에서

두견이 울음되어 휴전선 전갈래

수줍은 맛칠하고 흔해울리던 날

꽃잎마다 눈물 아롱 새기며

높이 도드란 달아 동방화차되어

넋이라도 남과 함께 있어라. 아호

온누리 함께 비취오시라

장하장하 두리두리 배사라 두리두리

장하장하 두리두리 배사라 두리두리

이일섭

(한교 · 사법4)

남은 새벽이슬 찼던 수모 아

칠하노인 맺어준 부부인연의 땅이며.



사건수필

네가 사는 세상은 예쁜 꽃들 가득한, 아름다운 곳이라고 알고 싶었다. 네가 느끼는 모든 것들이, 그래 오늘 이 따뜻한 봄날 봄기를 바랬다. 너에게 내가 외치는 구호를 들려주고 싶지 않았다. 내가 두른 피복 끈을 네게 보이기를 싫었다. 이제, 내 마음을 너의 자그마한 몸통 이가, 정녕 끝없는 힘이 되는구나. 네가 살아갈 세상은 참 아름다운 세상 이어야 한다. 우리 이 어둠을 다시는 들려주지 말아야 한다. 지난 5월 1일 브라에 공헌 노동정기 기념회에서 너의 아바가.

한승주 기자



97년도 졸업예정자 촬영일정

(서울)			(용인)			(서울만 해당)		
일자	학과	시간	일자	학과	시간	졸업사진 촬영업체 약도	촬영시간	촬영장소
5월 6일(월)	법학과	09:30~	5월 13일(월)	계이계측공학과	10:00~	한신대학교	10:00~	한신대학교
	신문방송학과	13:00~		컴퓨터공학과	11:00~			
	정치외교학과	14:00~		수학과	12:00~			
5월 7일(화)	불어교육과	09:30~	5월 14일(화)	물리학과	14:00~	한신대학교	14:00~	한신대학교
	영어교육과	10:30~		통계학과	15:00~			
	독일어교육과	13:30~		화학학과	10:00~			
5월 8일(수)	한국어교육과	14:30~	5월 15일(수)	환경학과	11:00~	한신대학교	11:00~	한신대학교
	이태리어과	09:30~		영어과	13:00~			
	마인어과	10:30~	5월 16일(목)	미술학과	10:00~	한신대학교	10:00~	한신대학교
5월 9일(목)	일본어과	11:30~		철학과	11:00~		11:00~	한신대학교
	행정학과	14:00~		한국어과	13:00~			
	태국어과	09:30~	5월 22일(수)	독일어과	14:00~	한신대학교	14:00~	한신대학교
5월 10일(금)	포르투갈어과	10:30~		사한어과	10:00~		10:00~	한신대학교
	인도어과	13:30~		아랍어과	11:00~			
	터키어과	14:30~	5월 23일(목)	이태리어과	13:00~	한신대학교	13:00~	한신대학교
5월 11일(금)	영어과	09:30~		유고어과	14:00~		14:00~	한신대학교
	불어과	13:00~		루마니아어과	10:00~	한신대학교	10:00~	한신대학교
	네덜란드어과	15:00~	5월 27일(월)	일본어과	11:00~	한신대학교	11:00~	한신대학교
5월 17일(금)	서반어과	09:30~		인도어과	12:00~	한신대학교	12:00~	한신대학교
	중국어과	11:30~		중국어과	13:30~	한신대학교	13:30~	한신대학교
	러시아어과	13:30~	6월 3일(수)	태국어과	14:30~	한신대학교	14:30~	한신대학교
5월 20일(월)	이란어과	14:30~		필리핀어과	10:00~	한신대학교	10:00~	한신대학교
	독일어과	09:30~		베트남어과	11:00~	한신대학교	11:00~	한신대학교
	베트남어과	11:30~	5월 21일(화)	경제학과	11:00~	한신대학교	11:00~	한신대학교
5월 21일(화)	경리학과	12:30~		경영학과	13:00~	한신대학교	13:00~	한신대학교
	스칸디나비아어과	14:30~		경영정보학과	14:00~	한신대학교	14:00~	한신대학교
	무역학과	09:30~						
5월 21일(화)	아랍어과	11:30~						
	경제학과	13:30~						

대표위원 모집

한국의국어대학교 모의국제연합(MUN)에서는 제20차 모의유엔총회에 참가할 대표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총회회의: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질서 재편
행사일시:1996년 9월 11일 수요일



The Model UN invites you delegates to the 20th Model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모집대상:서울소재 대학의 모든 대학생
지원자격:국제관계에 관심있고 해당언어에 능통한 학생
모집언어:한국어·영어·불어·독어·러시아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아랍어 등(유엔에 가입한 모든 회원국의 언어)

모집기간:5월 23일까지
지원방법:각 학교 해당 학과장에게 비치된 지원서를 작성한 후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회관 2층 모의국제연합으로 직접 제출
TEL:(02)961-4458 FAX:(02)961-4458

FBS 가요제

외대용인교육방송국에서는 젊은 노래 한마당 FBS가요제를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참가대상: 본교생 및 경인지역 대학생

준비물: 본인 도장, 손수 창작곡 악보 2매

접수마감: 5월10일(금)까지

예선: 5월11일(토) 늦은 1시
용인 배움터 교양학관 301호

본선: 5월28일(화) 늦은3시
노천극장

외대용인교육방송국